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오츠베르와 코끼리(オツベルと象)』 론

박 선 양*

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노동자 계급의 유형
 - 2. 노동자 계급의 행태 변화
- III. 결론

I. 서론

미야자와 겐지(1896-1933)의 작품은 대립적인 구조를 내포하면서 그 구조를 지양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근대와 전근대, 인간세계와 자연세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라는 이항대립적인 요소들을 가진 대립구도이면서도 그 어느 것도 부정하고 있지 않다. 『토신과 여우(土神と狐)』(1923?)에서 작가는 토신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여우로 상징되는 근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메토코산의 곰(なめとこ山の熊)』(1927?)에서는 주인공이 속하고자 했던 세계는 인간의 세계도 아니었으며, 자연(곰)의 세계도 아니었다. 1926년(大正15) 1월 『월요(月曜)』 창간호에 발표한 『오츠베르와 코끼리(オツベルと象)』에서도 작가의 시선은 자본가인 오츠베르와 노동자인 코끼리 어느 쪽에게도 비판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츠베르와 코끼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악덕지주 오츠베르(자본가)와 그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코끼리(노동자)를 대립적인 구도로 파악한 뒤, 악덕지주 오츠베르의 죽음을 통해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흰 코끼리(白象)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이 타는 코끼리를 연상시키고 석가(釋迦)의 어머니인 마야(摩耶)부인의 태몽이 흰 코끼리였던 점과 코끼리들이 쉬고 있던 곳이 사라수(紗羅樹) 아래라는 점 등에서 작품의 배경을 인도로 보고 종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경우이다. 즉 흰 코끼리가 혹독한 노동을 견디는 것은 오즈베르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결국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즈베르와 코끼리』의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계급간의 관계를 살펴본 뒤, 그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가 계급도 노동자 계급도 비판할 수 없었던 현실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오즈베르와 코끼리』는 자본가인 오즈베르와 오즈베르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코끼리의 이야기로,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숲에서 살고 있던 코끼리(白象)가 소작인을 두고 있는 지주인 오즈베르가 있는 곳으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노동을 즐거워했지만 줄어드는 먹이와 힘든 일에 견디지 못하게 된 코끼리(白象)는 동료 코끼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결국 오즈베르는 코끼리들에게 밭혀 죽게 되고 코끼리(白象)는 구출된다는 이야기이다.

『오즈베르와 코끼리』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작품이 전개되며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내레이터가 첫 번째 일요일, 두 번째 일요일과 다섯 번째 일요일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첫 번째 일요일과 두 번째 일요일은 주로 오즈베르에게, 다섯 번째 일요일은 코끼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나메토코산의 꿈』과 마찬가지로 『오즈베르와 코끼리』도 오즈베르와 농부들이 있는 인간세계와 흰 코끼리와 회색 코끼리들이 사는 자연(숲)의 세계가 작품의 주요 공간이다. 인간세계의 경우는 오즈베르와 그 소작인인 16명의 농부들이 등장하고, 숲의 세계에는 인간세계로 온 흰 코끼리와 동료들인 회색 코끼리들이 살고 있다. 작품은 인간세계에서의 오즈베르와 흰 코끼리의 관계가 중심축이지만, 관계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흰 코끼리의 심경 변화를 통해 주변 인물의 성격이 구체화된다. 본 문에서는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계급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뒤, 흰 코끼리의 심경의 변화

를 통해 구체화되는 등장인물의 행동의 의미, 즉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노동자 계급의 유형

『오츠베르와 코끼리』는 자본가 오츠베르와 노동자 코끼리(白象)의 이야기다. 작품 속에서 노동자 계급은 이 흰 코끼리 이외에도 오츠베르의 또 다른 소작인인 농부가 등장한다. 그리고 흰 코끼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오츠베르에게 분개하는 집단으로서 농민 봉기를 연상시키는 회색 코끼리 집단도 등장하고 있다. 오츠베르와 이 세 가지 형태의 노동자 계급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 오츠베르와 농부들의 관계

오츠베르는 자본을 가지고 탈곡기계를 6대나 살 수 있었고, 16명의 농부들은 이 기계를 사용해서 벼를 탈곡한다. 오츠베르와 농부들은 이 기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규정된다.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오츠베르와 농부들 사이에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²⁾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기계를 사용할 때만 성립되는 관계이다. 농부들과 오츠베르 사이에는 경제활동 이외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만 오츠베르에게 복종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일, 즉 코끼리가 오츠베르의 작업장에 들어온 사건에는 방관적일 뿐이다. 농부들은 노동에 “참가는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구조 내부에서 구조를 변혁시키지 못”하며, “새로운 외부의 힘의 등장만을 기다리”³⁾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얼굴을 완전히 새빨개”⁴⁾지도록 일만 할 뿐이며, 코끼리가 작업장에 들어 왔을 때도 공포에 떨면서도 괜히 그 일에 “말려들면 참혹한 꼴을 당할 테니까 그쪽을 보지 않고 벼를 탈곡할”⁵⁾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코끼리 집단이 오츠베르를 공격할 때는 주인인 오츠베르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며 “이런 주인에게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⁶⁾ 모두 코끼리 집단에 항복하기 까지 한다. 이들 농부들은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주인에게 복종하지만 새로운 힘 앞에서는 주인을 배신할 수도 있는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오츠베르와 흰 코끼리의 관계

오츠베르는 흰 코끼리를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교묘하게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는 코끼리의 노동력을 잘 이용하면 재산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코끼리의 힘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흰 코끼리는 “힘도 20마력이 나 되”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녀석”⁷⁾인 것이다.

흰 코끼리가 오츠베르의 혹독한 노동을 견뎌낸 것은 자신이 원해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츠베르는 코끼리에게 크게 세 가지 트릭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코끼리가 오츠베르의 작업장에 왔을 때이다. 오츠베르는 코끼리에게 일부러 관심이 없는 듯 태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코끼리가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코끼리가 입을 열었을 때 비로소 코끼리에게 말을 건다.

“어때, 여기는 재미있는가.”

“재미있군.”

“계속 여기에 있는 게 어떤가.”

“있는 것도 괜찮지.”

「どうだい、此處は面白いかい。」

「面白いねえ。」

「ずうっとこっちに居たらどうだい。」

「居てもいいよ。」⁸⁾

오츠베르와 코끼리의 대화를 보면, 오츠베르가 코끼리에게 스스로 작업장에 남을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오츠베르의 재산이 된다.

두 번째 트릭은 코끼리에게 쇠사슬과 분동(分銅)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 된다. 오츠베르는 쇠사슬과 분동을 채울 때, 코끼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 양철로 만든 시계를 선물로 주듯이 목에 걸어 준다. 시계를 걸 때 필요한 것처럼 “100kg”나 되는 쇠사슬도 함께 다리에 채운다. 그리고 분동을 끼우기 위해, 종이로 만든 신발을 신게 한다. “400kg”나 되는 분동을 신발의 장식인 양 끼워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도록 족쇄를 채우지만 코끼리는 자신이 선물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끼리의 노동이 시작된다.

오츠베르의 세 번째 트릭은 이와 동시에 시작된다. 오츠베르는 코끼리에게 일을 시킬 때, 항상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 제도 때문에, 즉 “세금”이 올라서 코끼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해서 코끼리가 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 트릭이란 일하는 시간과 일의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먹이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점심이 지난 반나절 동안”, 그리고 나서 “반나절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일을 했다. 먹이인 짚의 양도 처음에는 “10다발”, 그 다음에는 “8다발”을 그리고 나서 “7다발”, 그 다음날은 “5다발”로 줄여 들었다. 이렇게 양을 줄여가는 것은 쇠사슬을 채워도 언제든지 숲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숨쉬는 것만으로도 돌도 날려 버릴”⁹⁾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한” 오츠베르와 달리, 코끼리는 무자각적인 존재이다. 우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인지도 모를 뿐더러, 오츠베르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 오츠베르의 트릭에 넘어가 스스로 좋아서 노동을 하게 되었고, 일하는 것이 유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혹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흰 코끼리는 노동의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 경제적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오츠베르에게는 순종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일하는 것은 코끼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흰 코끼리에게서는 부당함에 어느 정도 분개는 하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할 뿐인 노동자 계급, 즉 타인의 힘에 의해서만 해방이 가능한 노동자 계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오츠베르와 회색 코끼리들과의 관계

흰 코끼리의 동료 코끼리들은 점심시간에 바둑을 두는 등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집단이다. 그리고 “오츠베르를 처치해버리자”며 무리를 선동하는 의장(議長)도 있어 정치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오츠베르에게 흰 코끼리가 흑사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 코끼리들의 행동은 폭력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 작은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고, 덤불이 되고 모두 엉망진창이다. 불꽃처럼 들판으로 뛰쳐나갔다. (中略)오츠베르 집의 노란 지붕

을 발견하자 코끼리는 일시에 분화했다.

どいつもみんなきちがいだ。小さな木などは根こぎになり、藪や何かもめちやめちやだ。グワア グワア グワア、花火みたいに野原の中へ飛び出した。。(中略) オツベルの邸の黄いろな屋根を見付けると、象はいちどに噴火した。¹⁰

무리를 지어 달려오는 코끼리들을 본 농부들은 “뿔기를 잃고” 주인에게 달려가 코끼리들이 몰려온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오츠베르는 이 코끼리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코끼리가 저항할 것에 대비해 일부러 힘을 못 쓰게 해 놓았고, 담장은 코끼리들도 좁처럼 부술 수 없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해 줄 6연발 피스톨도 장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코끼리들의 집단적인 행동 앞에서 무력했다.

코끼리들은 동료의 등을 발판삼아 드디어 담장을 넘어온다. 점점 희미한 가운데 얼굴을 드러낸다. 그 주름진 회색의 커다란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오츠베르의 개는 기절했다. 자, 오츠베르는 총을 쏘기 시작했다. 6연발 피스톨을. (中略) 그런데 탄환은 통과하지 않는다. 상아에 부딪히면 튕겨 돌아온다.

象どもは、仲間のからだを台にして、いよいよ塀を越しかかる。だんだんにゆうと顔を出す。その皺くちやで灰いろの、大きな顔を見あげたとき、オツベルの犬は氣絶した。さあ、オツベルはう射ちだした。六連發のピストルさ。(中略) ところが弾丸は通らない。牙にあたればはねかえる。¹¹

이렇게 담장을 넘어온 코끼리들에 의해 오츠베르는 탄약통을 쥐 채로 밟혀 죽는다. 오츠베르는 신흥 자본가다운 모험을 하고, 그만 위험한 일-코끼리를 재산으로 삼은 일-에 손을 대 파멸해 버린다.¹² 이 회색 코끼리들은 영리한 자본가 오츠베르가 생각하지 못했던 노동자 집단이다. 농부들의 비단결성의 무력함과 대비되어 ‘단결의 위력’¹³을 보여주는 노동자 계급이며,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자본가의 부당함에 폭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진 집단인 것이다.

2. 노동자 계급의 행태의 변화 - 코끼리를 중심으로

오츠베르는 결말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대단한 자본가로 묘사된다. 작가는 내레이터를 통해 오츠베르의 영리함에 대해 4번이나 칭찬의 말을 하고 있다.

오츠베르로 말하자면 대단한 자이다. 탈곡기계를 6대나 두고,(後略)
オツベルときたら大したもんだ。稲扱機械の六台も据えつけて、(後略)¹⁴⁾

오츠베르로 말하자면 대단한 자이다. 게다가 이전에 탈곡기계 작업장에서 능숙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 코끼리도 (中略)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주인이 훌륭해서이다.
オツベルときたら大したもんだ。それにこの前稲扱小屋で、うまく自分のものにした、象も (中略) そんなに稼ぐのも、やっぱり主人が偉いのだ。¹⁵⁾

정말로 코끼리는 경제라니까. 그것도 오츠베르가 머리가 좋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오츠베르로 말하자면 대단한 자이다.
じっさい象はけいざいだよ。それというのもオツベルが、頭がよくてえらいためだ。オツベルときたら大したもんさ。¹⁶⁾

그런데 오츠베르는 역시 훌륭하다. 눈을 딱 떴을 때에는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었다.
ところがオツベルはやっぱりえらい。眼をぱっちりとかいたときは、もう何もかもわかっていた。¹⁷⁾

이처럼 오츠베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흰 코끼리의 경우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흰 코끼리의 변화에 따라 다른 노동자 계급의 성격도 구체화된다.

흰 코끼리는 처음에 웃으면서 오츠베르의 작업장에 발을 들여 놓는다. 그리고 오츠베르의 트럭에 넘어가 노동력을 서서히 착취당하기 시작한다. 이 때 농부들은 코끼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주인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흰 코끼리도 오츠베르에게 순종적으로 기뻐하며 밭에 물 뿌리는 일을 한 뒤, “아, 돈을 번다는 것은 유쾌하군. 상쾌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날도 웃으면서 장작을 운반한 뒤, 역시 기뻐하며 “아 기분이 상쾌하다.”라며 혼잣말을 한다. 그 다음날은 제철소에서 송풍기 대신 일을 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피곤하

다”고 말을 하지만, 역시 기뻐한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일의 양과 먹이의 양을 반비례하게 되고, 코끼리의 심경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코끼리를 오츠베르는 조금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루었다. 방식이 점점 혹독해져서 코끼리는 좀처럼 웃지 않게 되었다. 때로는 빨간 용의 눈을 해가지고서는 가만히 이렇게 오츠베르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象を、オツベルはすこしひどくし過ぎた。しかたがだんだんひどくなったから、象がなかなか笑わなくなった。時には赤い龍の眼をして、じっとこんなにオツベルを見おろすようになってきた。¹⁸⁾

오츠베르에게 혹독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코끼리는 “괴롭다”고 말하면서, 먹이도 먹지 않고 자포자기의 상태가 된다. 그저 오츠베르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분노할 뿐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동을 하는 농부들과 달리 노동의 즐거움을 알았지만, 구조 내부에서 구조를 변혁시키지 못한 점은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의 힘으로 구조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흰 코끼리는 결국 동료 코끼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 모두 나와서 구해 주게나.

ぼくはずいぶん眼にあっている。みんなでて来て助けてくれ。¹⁹⁾

코끼리는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구출되기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노동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무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동료 코끼리 집단을 통해서 작가는 이야기한다. 흰 코끼리를 구출하기 위해 오츠베르의 작업장을 공격해오는 코끼리 집단의 모습은 역동적이고 힘이 느껴진다. 오츠베르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처하지만, 자신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소작인 농부들의 외면에 당황하기 시작한다. 흰 코끼리와 달리 바로 현실을 인식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오츠베르는 주인이 아니었다. 이 또한 노동자 집단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츠베르의 죽음은 잔혹하지만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내레이터가 장황하게 대단하다고 표현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노동자 계급 역시 소

극적이고 무력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이고 힘 있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자본가 오츠베르와 세 가지 유형의 노동자 계급간의 관계를 살펴본 뒤, 노동자 계급의 행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오츠베르와 코끼리』에서 작가의 시선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어느 쪽에도 비판적이지 않았다. 이는 작가가 노동자의 힘도, 자본가의 능력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오츠베르와 코끼리』는 자본가인 오츠베르와 노동자인 코끼리의 계급적 대립 구도로 되어 있고, 자본가 오츠베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이 결말부분만 보면 작가가 자본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오히려 노동자 계급인 농부들과 흰 코끼리를 소극적이고 무력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오츠베르는 코끼리를 재산으로 삼는 영리함과, 코끼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먹이를 조금씩 줄여가며 코끼리의 저항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내레이터를 통해 계속해서 오츠베르가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영리한 자본가 오츠베르와 무력한 노동자 흰 코끼리를 대조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있지만, 작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준다.

결국 작가는 『오츠베르와 코끼리』에서 자본가의 영리함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잠재적인 힘을 간과하면 오츠베르와 같은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츠베르와 코끼리』는 노동자의 힘도, 자본가의 능력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라 할 수 있다.

【注】

- 1) 渡部芳紀、宮澤賢治作品における對立の構造とその止揚、『宮澤賢治』、1992、1
- 2) 小森陽一、『最新宮澤賢治講義』、朝日新聞社、1996、p.174
- 3) 安藤恭子、「オツベルと象」『國文學』、2003、2、臨時増刊號、p.30
- 4) 十六人の百姓どもが、顔をまるっきり真っ赤にして足で踏んで機械をまわし、小山のように積まれた稲を片っぱしから扱いて行く。(〔新〕校本『宮澤賢治全集』第十二卷、筑摩書房、1995)

- 、p.161)
- 5) 百姓どもはぎよつとした。それでも仕事が忙しいし、かかり合ってはひどいから、そっちを見ずに、やっぱり稲を扱っていた。(위의 책, p.162)
 - 6) こんな主人に巻き添いなんぞ食いたくないから、みんなタオルやはんげちや、よごれたような白いようなものを、ぐるぐる腕に巻きつける。降参するしるしなのだ。(위의 책, p.168)
 - 7) 力も二十馬力もある。(中略) そしてずいぶんはたらくもんだ。(위의 책, p.163)
 - 8) 위의 책, p.163 회화부분
 - 9) 本氣でやったら、ほく、もう、息で、石もなげとばせるよ。(위의 책, p.165)
 - 10) 위의 책, p.167
 - 11) 위의 책, p.168
 - 12) 宇佐美眞、「オツベルと象」、「解釋」、2002、1・2、p.11
 - 13) 丹慶英五郎、「オツベルと象」、「宮澤賢治一作品と人間像」、1962、p.115
 - 14) 위의 책, p.161
 - 15) 위의 책, p.163
 - 16) 위의 책, p.166
 - 17) 위의 책, p.167
 - 18) 위의 책, p.166
 - 19) 위의 책, p.167

参考文献

- 門倉昭治、『オツベルと象』の読み方、「日本文学」、1954、12
- 伊東盛夫、「オツベルと象」試論、「四次元」、1959、3
- 丹慶英五郎、「オツベルと象」、「宮澤賢治一作品と人間像」、1962
- 續橋達雄、「オツベルと象」、「四次元」、1965
- 遠野拓、「オツベルと象」論、「日本児童文学」、1976、2
- 池上雄三、「オツベルと象」一白象のさびしさ、「國文学」、1982、2
- 、「オツベルと象」、「作品論宮澤賢治」
- 天澤退二郎、「なめとこ山の熊」と「オツベルと象」、「月刊國語教育」、1986、3-5
- 佐野美津男、「オツベルと象」、「宮澤賢治の童話を讀む」、1988
- 谷川雁、「オツベルと象」、「賢治初期童話考」
- 渡部芳紀、宮澤賢治作品における對立の構造とその止揚、『宮澤賢治』、1992、1
- 今井洋一、「オツベルと象」メモ、「日本近代文学研究」、1994、3
- 小森陽一、「オツベルと象」、「最新宮澤賢治講義」、1996
- 西成彦、『森のゲリラ 宮澤賢治』、岩波書店、1997
- 矢野彌生、「オツベルと象」論、一<<仲介者>>の時間と<<オツベル・象>>の時間—高知大學宮澤賢治研究會、『注文の多い土佐料理店』創刊号、1999、12
- 小笠裕二、「オツベルと象」、近代小説千夜一夜、1999、12、2

村浪眞穂、「オツベルと象」、中央大學卒業論文、2000

宇佐美眞、「オツベルと象」、「解釋」、2002、1・2

安藤恭子、「オツベルと象」、「國文學」、2003、2、臨時増刊號

宮澤賢治の『オツベルと象』論

朴 宣 亮

『オツベルと象』は大正15年1月『月曜』創刊号に掲載された作品である。オツベルは「悪らつな搾取者、資本家」とされており、白象は「資本家に搾取される労働者」と評価されている。

本稿は登場人物の象徴する階級の関係を考察してから、その行動の意味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つまり、労働者階級を「百姓」・「白象」・「象の仲間たち」と分けて、オツベルと労働者階級の関係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オツベルと象』で、作者は資本家と労働者階級という対立の構造を肯定的に語って見せながら、オツベルの方に好意を寄せ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作品の中で、語り手は「オツベルは大したもんだ」と繰り返し述べ、オツベルを譽めている。語り手に絶賛されているオツベルを悪らつな資本家として片付けるのは、強引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作者は、かえって労働者階級である「百姓」と「白象」を消極的で無自覺的に描こうと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この作品では、利口で欲深い資本家と、のんきでばかな欲がない労働者という、対照的な存在が登場しており、資本家に對しても、労働者に對しても皮肉が込められ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る。

しかし、「オツベルは大したもんだ」と、オツベルの知恵のみごときを繰り返しながら、おしまいにオツベルが象の仲間たちに踏み潰されてしまうどんでんがえしの技法も見逃してはならないだろう。

畢竟するに、この作品はオツベルを批判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資本家の利口さも認められるが、労働者階級の潜在的なパワーをみおとしては、オツベルのように、身を破滅させてしまうという社會的な批判を語らせているのではないか。つまり、労働者のパワーも、資本家の能力も否定しがたい現状に對する作者の批判を語らせたのが、この作品なのだと思う。